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(17)

야마추보의 링 방적 솜씨 - 철저한 원면 선택으로 고유 소재 개발

야마추보는 링 방적 시설을 “선 라이지”, “선 알바” 등의 데님용 태번수 얼룩 실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, 야마추 면업이라는 면화상이 모회사이므로 원면 구매를 철저하게 선택하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.

“선 알바”는 짐바브웨(Zimbabwe) 면 중에서도 최상급의 “부미”를 사용하여 데님 산지로부터 대단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소재이다. 보통의 면화보다는 백도가 좋고 광택감, 윤기가 있어 염색성이 좋은 것이 특성이다.

2004년에 상품화한 것은 그리스 면을 사용한 “그리피스”인데, 이 원면도 백도가 좋고, 독특한 촉감이 있다.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현지의 면화상과 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특수 장면(特殊長綿) 200표를 입수하여, 현재 이 원면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.

최근에는 고객에게 품질이 좋은 소재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해주도록, 1주에 한 번씩 새로 입수한 원면을 전문 기관에서 품질을 체크 받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. ♣